

# 차등과 숭고미의 전복, 똥의 기호

## - 연암 박지원의 ‘똥’을 중심으로

박수밀\*

### 【 차 례 】

- I. 문제제기
- II. 연암 박지원의 문학에 나타난 똥
- III. 연암의 똥이 갖는 의미
- IV. 마무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종의 아브제시옹인 똥에 대한 탐구를 통해 금기와 질서에 도전하는 인간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암 박지원의 똥에 대한 담론을 살펴 전근대 시대에 똥이 갖는 의미와 연암이 똥을 통해 들려주려 한 바를 분석하였다. 연암의 글에 나타난 똥이 기존의 허위를 폭로하고 전복하려는 공통의 기능을 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똥의 의미를 세 층위에서 접근했다. 먼저는 「일신수필」 ‘장관론’에 나타난 똥거름의 의미를 살폈다. 연암은 똥거름이 진짜 장관이라고 주장했는데, 가장 쓸모없는 똥에서 가장 큰 쓸모를 발견하는 발상은 장자의 사고와 맞닿아 있었다. 연암에게 똥은 금의 가치를 지닌 훌륭한 자원이었고, 문명의 표상이었다. 모든 존재는 미적 가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숭고/비천, 미/추, 쓸모 있음/쓸모없음의 이항 대립을 해체하여 기존의 규범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드러냈다.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 등장하는 똥 푸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친구란 누구인가?, 참다운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들려주었다. 똥은 신성한 존재였다. 가장 천한 존재가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역설을 제시하여 전통적

---

\* 한양대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 연구교수

인 인간관에 대한 전복을 꾀했다. 「예덕선생전」의 똥이 건강한 인간을 표상하는 기호로 쓰였다면 「호질(虎叱)」에 나오는 똥은 부조리한 인간을 풍자하는 기호로 작용했다. 「낭환집서」에서의 소똥은 주변/중심을 해체시키는 기호였다. 똥을 통해 다양함의 가치를 조명하고 주변적인 가치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 곧 연암에게 똥은 숭고/비천, 중심/주변, 우아미/추의 미, 고귀함/천박함, 쓸모 있음/쓸모 없음, 청결/오염의 이항 대립을 해체하고 차등과 차별을 전복시키는 기호였다. 근대와 고전 시대 선비들이 똥을 야만의 징표로 본 반면 연암은 똥에서 문명의 징표를 읽었다. 똥을 통해 기존의 규범과 관습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가장 비천한 사물에서 가장 신성한 것을 찾아내는 차원 높은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열쇠어 : 똥, 박지원, 장관론, 예덕선생전, 이항 대립, 기호.

## I. 문제제기

이탈리아의 화가인 피에르 만초니(Piero Manzoni, 1933~1963)는 자신의 똥을 90개의 강통에 담아 일련번호를 매긴 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예술가의 똥. 정량 30g. 원상태로 보존됨. 1961년 5월 생산되어 강통에 넣어짐.” 그는 금의 무게와 똑같은 가격에 똥 통조림을 판매, 자본주의 사회의 예술품은 사회의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표현했다. 만초니는 똥을 통해 기존의 질서와 예술을 전복하려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똥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항문으로 내보내는 찌꺼기이다. 한자로는 분(糞)으로 쓴다. 쌀 미(米)와 다를 이(異)로 이루어져, 쌀의 다른 모습이란 뜻을 갖는다. 똥과 쌀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밥이 똥이 되고 똥은 다시 논밭의 거름이 되어 쌀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근대의 위생 관념과 맞물려 오늘날 똥은 하나의 아브제시옹(Abjection)이 되었다. 아브제시옹은 정체성, 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경계, 위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 똥은 멀리 내버려야 할

1) J. 크리스테바 지음,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28쪽.

폐기물이자 혐오의 대상이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가장 비천한 사물이므로, 똥을 입에 올리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표현하는 행위는 문제적이다. 똥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강력한 기호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송고미와 우아미의 대척에 선 똥을 통해 기존의 관습과 질서를 저항하거나 전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똥의 전복성을 살펴봄으로써 금기와 질서에 도전하는 문학과 인간의 저항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작업의 출발로써 먼저는 전근대 시대의 인물인 연암 박지원의 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연암의 작품에선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에서 똥이 등장한다. 전근대 시대에 똥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작가는 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한 것일까? 똥을 하나의 기호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은 작가론과 주제론 중심의 기존 연구 관행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항 대립의 구조에 주목하면서 풀어가 똥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 한다.

## II. 연암 박지원의 문학에 나타난 똥

고전문학을 통틀어 똥을 문학의 중심 소재로 끌어들이는 이는 연암 외에는 달리 찾아볼 길이 없다. 연암의 문학에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점에서 똥이 중심 제재로 등장하곤 한다. 『열하일기』의 ‘장관론(壯觀論)’을 비롯해,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낭환집서(蠟丸集序)」 「호질(虎叱)」 등에 모두 똥이 나오는데, 단순한 소재로 쓰이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함축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연암에게 똥은 은폐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게 하는 핵심 도구이자 중심과 주변, 송고와 비천,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이항 대립을 해체하는 상징적인 기호이다. 각각의 글에 나타난 똥은 기존 질서의 허위를 폭로하고 전복시키는 공통의 기능을 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연암의 작품

에 나타난 동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층위에서 접근해 보았다.

## 1. 동 의 자원학 ; 문명의 본질 제시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신수필(駟汎隨筆)」 7월 15일자 기사에는 이른바 ‘장관론(壯觀論)’이라는 글이 있다.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제일 멋진 장관을 꼽을 때, 만리장성이나 궁궐과 같이 거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풍경을 이야기한다. 그때 일류 선비는 ‘볼 만한 장관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정색을 한다. 중국은 온 천하가 머리를 깎은 오랑캐일 뿐이고, 오랑캐는 개나 돼지와 같으므로 개와 돼지에겐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암은 스스로를 삼류 선비라고 낮추면서 장관은 기와조각과 동거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삼류 선비다. 장관은 기와조각에 있고 장관은 동 덩어리에 있다고 말하겠다. 저 깨진 기와조각은 천하가 버리는 물건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조각을 두 장씩 마주 놓아 물결무늬를 만들거나 넷을 모아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거나 네 조각을 등지게 하여 옛 엽전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구멍이 영롱하게 뚫려 안팎이 마주 비치게 된다. 깨진 기와조각을 버리지 않자 천하의 무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동네 집들의 문 앞 뜰에 가난하여 벽돌을 깔 수 없으면 여러 빗갈의 유리 기와조각과 냇가의 둥근 조약돌을 주워 열기설기 서로 맞추어 꽃·나무·새·짐승 무늬를 새겨 깔아놓는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땅이 진창이 될 걱정이 없게 된다. 기와조각과 조약돌을 내버리지 않자 천하의 훌륭한 그림이 모두 여기에 있게 되었다. 동은 아주 더러운 물건이지만 밭의 거름으로 쓰일 때는 금인 양 아끼게 된다. 길에는 버린 덩어리가 없고 말뚝을 주는 자는 삼태기를 둘러메고 말 꼬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동을 모아서 네모반듯하게 쌓거나 혹은 여덟 모로 혹은 여섯 모로 혹은 누각 모양으로 쌓아 올린다. 동 덩어리를 관찰하니 천하의 제도가 여기에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기와조각과 동 덩어리가 모두 장관이다. 굳이 성곽과

연못, 궁실과 누대, 점포와 사찰, 목축과 광활한 벌판, 기묘하고 환상적인 안개 숲만이 장관은 아닐 것이다. <7월 15일 신묘일>2)

장관은 그 규모가 굉장하고 웅장하여 구경거리가 될 만한 볼거리를 말한다. 성곽과 궁실, 광활한 벌판 등 기묘하고 환상적인 풍경이 이른바 장관으로 불리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작가는 생뚱맞게 기와조각과 똥오줌이 진정한 장관이라고 말한다. 기와조각은 쓸모가 없어 천하가 버리는 물건이고 똥오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사물이다. 둘은 장관의 이미지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이른바 폐기물이다. 성곽과 연못, 궁실, 누각과는 대립을 이룬다.

왜 작가는 웅장한 성곽이나 궁실에서 중국의 문명을 보려 했던 여느 인사들과는 달리 가장 혐오스런 똥거름을 거론하는 것일까? 이유인즉, 기와조각은 담장에 배치하면 멋진 무늬를 만들고, 뜰에 깔아두면 비가 내렸을 때 진창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똥오줌은 거름으로 쓰면 이보다 훌륭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곧 사물을 잘 활용하여 삶에 도움을 주자는 실용 정신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장관론은 연암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글로 이해한다.

그런데 왜 무수한 사물 가운데 하필 가장 더러운 똥을 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는 작가가 말한 장관(壯觀)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 보겠다. 「일신수필서(駢迅隨筆序)」에서 작가는 한갓 구이지학(口耳之學), 곧 귀로 들은 것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남에게 전하기만 하는

---

2) 朴趾源, 『熱河日記』, 「駢迅隨筆」 7월 15일 辛卯日: “余下土也, 曰壯觀在瓦礫, 曰壯觀在糞壤. 夫斷瓦, 天下之棄物也. 然而民舍繚垣肩以上, 更以斷瓦兩兩相配, 爲波濤之紋, 四合而成連環之形, 四背而成古魯錢, 嵌空玲瓏, 外內交映. 不棄斷瓦, 而天下之文章斯在矣. 民家門庭, 貧不能鋪甃, 則聚諸色琉璃碎瓦, 及水邊小礫之磨圓者, 錯成花樹鳥獸之形, 以禦泥淖. 不棄碎礫而天下之畫圖斯在矣. 糞溷至穢之物也, 爲其糞田也, 則惜之如金. 道無遺灰, 拾馬矢者, 奉畚而尾隨. 積庠方正, 或八角, 或六楞, 或爲樓臺之形. 觀乎糞壤, 而天下之制度斯立矣. 故曰, 瓦礫糞壤, 都是壯觀. 不必城池, 宮室, 樓臺, 市鋪, 寺觀, 牧畜, 原野之曠漠, 烟樹之奇幻, 然後爲壯觀也.”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제 나는 누구와 더불어 천지간의 큰 볼거리[大觀]를 이야기하라?”라고 탄식했다.

한갓 입과 귀에만 의지하는 자들과는 함께 학문을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하물며 평생토록 뜻을 기울여도 도달할 수 없는 학문임에랴? 누군가 공자께서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고 말한다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가 사방 세계를 보았다고 말하면 헛되고 황당하다며 물리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지구 밖을 돌아다녔다고 하면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꾸짖을 것이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늘과 땅 사이의 큰 볼거리를 이야기하라?<sup>3)</sup>

조선 시대 선비들은 나고 죽을 때까지 성리학의 자장 안에서 살다 갔다. 그리하여 공자의 말이라면 설사 속으론 수궁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옳다고 말하며, 성리학 이외의 세계는 무조건 허무맹랑한 말이라며 배척해 왔다. 인용문은 그러한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글의 흐름을 따라 갔을 때 큰 볼거리(大觀)는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간헐 지식, 좁은 경험의 틀을 깨뜨리는 새로운 그 무엇’이라는 의미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작가가 중국에서 확인한 천지간의 큰 볼거리(大觀)의 실체는 기와조각과 똥이었다. 작가는 중국인들이 똥을 활용하는 모습에서 중국 문명의 실체, ‘새로운 그 무엇’을 직접 목도한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는 똥오줌, 즉 분뇨(糞尿)의 처리 문제는 큰 골칫거리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양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분뇨 처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sup>4)</sup>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기에 분뇨를 마땅히 사용할 데가 없었다. 길엔 각종 똥들이 널려 있어 악취가 넘쳐났고 함부로 버린 각종 똥

3) 朴趾源, 『熱河日記』, 「駟迅隨筆序」: “徒憑口耳者, 不足與語學問也. 況平生情量之所未到乎? 言聖人登泰山而小天下, 則心不然而口應之, 言佛視十方世界, 則斥爲幻妄, 言泰西人乘巨舶, 逸出地球之外, 叱爲怪誕. 吾誰與語天地之大觀哉?”

4) 金勇선, 「분뇨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온지논총』 50권, 2017, 203~228쪽.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달랐다. 오히려 똥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정은 박제가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똥거름을 황금인양 아낀다. 길에는 버려진 재가 없다. 말이 지나가면 삼태기를 들고 쾡무니를 따라가 말똥을 거둬들인다. 길가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광주리를 들고 가래를 끌고 다니면서 모래 틈에서 말똥을 가려 줍는다. 똥더미는 정방형으로 반듯하게 세모꼴로 쌓거나 여섯모꼴로 쌓는다...우리나라는 마른 똥을 거름으로 사용하므로 힘이 분산되어 효과가 온전하지 못하다. 성안의 똥을 완전하게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악취와 더러운 것이 길에 가득하다. 하천의 다리와 석축에는 사람 똥덩어리가 군데군데 쌓여 있어 장맛비가 크게 내리지 않으면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개똥이나 말똥이 사람들의 발에 늘 밟힌다.<sup>5)</sup>

중국은 똥을 황금처럼 아끼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일찍부터 분뇨 기술이 발달해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선진시대부터 배설물은 다시 자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태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땅의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분뇨에 눈을 돌렸다.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분전(糞田)이 널리 행해졌으며 분뇨를 이용한 다양한 시비법이 발전해 왔다. 분뇨(糞尿)를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면 북경에는 분상(糞商)이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여 분변을 수집하는 도호상(道戶商)과 분창(糞廠)을 개설해 대량으로 분변을 사고팔았던 창호상(廠戶商)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한다.<sup>6)</sup>

똥 때문에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된 조선 사회와 똥을 소중한 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중국, 작가는 그 차이에서 문명의 향방(向方)을 목도한 것이

5) 박제가 저, 안대희 역주, 『북학의(北學議)』, 돌베개, 2013, 86쪽.

6) 최덕경, 「東아시아 糞尿시비의 전통과 生態農業의 屈折」, 『역사 민속학』 35, 2011, 259~267쪽.

다. 가장 쓸모없는 똥이 가장 쓸모 있게 되는 역설, 이는 니체의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삶에서 나와 그 절정에 도달 한다’는<sup>7)</sup> 말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와조각과 똥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기표는 다르지만 같은 기의를 갖는다. 작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천하가 버리는 물건’, ‘아주 더러운 물건’이다. 이 같은 무용(無用)한 존재가 진정한 장관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장자적 발상과 잇닿는다. 이와 관련한 작가의 생각을 더 보기로 한다.

말이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도()는 터럭만한 차이로도 나뉘니, 도에 부합한다면 기와 조각과 벽돌인들 왜 버리겠는가? 그러므로 도올(櫛杓)은 흉악한 짐승이었지만 초나라의 역사책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했고,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여 매장하는 자는 아주 악한 도둑이지만 사마천과 반고는 그에 대해 썼던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오직 참되면 된다.<sup>8)</sup>

흥미롭게도 인용문의 “기와조각과 벽돌(瓦礫)인들 왜 버리겠는가? [瓦礫何棄]”라는 구절은 다른 이본인 『종북소선』의 「공작관집서(孔雀館集序)」에서는 “똥덩어리(糞壤)인들 왜 버리겠는가? [糞壤何棄]”로 되어 있다.<sup>9)</sup> 작가는 기와조각과 똥 덩어리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곧 기와조각, 도올, 몽둥이로 사람을 대려 죽여 매장한 자는 동일한 기호이다. 모두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윗글은 거창하고 고상한 언어에만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언어에도 존재하니 고상한 언어, 저급한 언어를 따지지 말고 오직 진실하게 쓰라는 주제 의식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똥(기와조각)은 거창하

7) 이승훈 저, 『문학으로 읽는 문화 상징사전』, ‘똥, 대변 배설물’, 푸른 사상, 2009, 170쪽.

8) 박지원, 「孔雀館文稿自序」: “語不必大. 道分毫釐. 所可道也, 瓦礫何棄? 故櫛杓惡獸, 楚史取名, 椎埋劇盜, 遷固是紕. 爲文者惟其眞而已矣.”

9) 이덕무 평선, 박희병 외 역주, 『종북소선』, 돌베개, 2010, 87쪽.



고 고상한 것과 대비되는 하찮고 쓸모없는 것을 의미한다. 글쓰기에 대한 비유에서 나온 말이니 저속하고 비천한 말(어휘)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벽돌, 통의 메타포는 장자의 「지북유(知北遊)」에서 확인된다.

동곽자郭子가 장자莊子에게 물었다.

“소위 도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없는 곳이 없소”

동곽자가 다시 물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장자가 대답했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소”

“어째서 그렇게 낮은 것에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돌피나 피에 있소”

“어째서 그렇게 점점 더 낮아집니까?”

“기와나 벽돌에도 있소”

“어째서 그렇게 차츰 더 심하게 내려갑니까?”

“통이나 오줌에도 있소”<sup>10)</sup>

도(道)가 초월적이고 높은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두루 있다는 뜻을, 가장 비천하고 낮은 통을 끌어와 이야기하고 있다. 『장자』에서는 통이 기와나 벽돌보다 더 낮은 단계로 나타나지만 연암에겐 동일한 의미이다. 곧 기와조각과 벽돌, 통은 각기 다른 사물이지만 작가의 의식 속에선 동일한 기호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제 「장관론」의 통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먼저는 기존 미의식의 전복이다. 기존의 세계관에서 미적 가치를 지닌 사물은 고상한 것, 거대한 것, 운치 있는 것, 향기로운 것, 웅장한 것이었다. 이른바, 성곽이나 궁궐과 같이 숭고미와 우아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와는 이항 대립을 갖는 무용(無用)한 것은 비천한 것, 왜소한 것, 쓸모없는 것,

10) 안동림 역주, 『장자』, 현암사, 1993, 546~547쪽

냄새나는 것, 볼품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었다. 기와조각, 벽돌, 똥 따위이다.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은 서로 교환될 수 없었다. 무용한 것은 배척되고 무시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런데 작가는 가장 쓸모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똥이 진짜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의 지표를 가장 천한 똥에서 찾은 것이다. 발칙한 상상력이자 기존의 미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다. 모든 존재는 미적 가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숭고/비천, 미/추, 쓸모 있음/쓸모없음의 이항 대립을 해체하여 기존의 이항대립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드러내게 한다.

둘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흔한 사물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이다. 똥은 너무 하찮고 더러운 사물이라서 사람들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잘 없는 것, 소외된 존재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연암은 ‘똥 덩어리를 관찰하고서[觀乎糞壤]’ 천하의 제도가 여기에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도(道)는 사물의 겉모습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대충 보는 피상적인 눈으로는 진짜 장관을 발견할 수 없다.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똥을 자세히 관찰하자 거기엔 위대한 문명의 징표가 있었다. 연암에게 똥은 단순한 똥이 아니라, 금의 가치를 지닌 훌륭한 자원이었고, 문명의 표상이었다.

## 2. 똥의 인간학 ; 새로운 인간관 조명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는 엄행수(嚴行首)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직업이 똥을 푸는 사람이다. 전(傳)은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인물의 일생을 서술하는 양식인데, 똥 푸는 자를 입전하는 데서 이미 문제성을 드러낸다. 선굴자가 그를 예덕 선생이라 부르며 친구로 삼자, 제자인 자목이 왜 천박한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며 따진다.

선굴자에겐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며 날마다 마을의 똥거름을 처내는 일을 하며 먹고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엄 행수라고 불렀다. 행수란 막일을 하는 늙은이를 부르는 말이고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선굴자에게 따졌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않은 형제라 하셨습니다. 벗이 이처럼 소중하다 하신 것이지요. 세상에 내로라하는 사대부들 가운데 스승님을 좇아 그 덕 아래에서 배우며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스승님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 엄 행수란 자는 마을에서 제일 천한 사람으로 하루( )에서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스승님께서 그의 덕을 자주 칭찬해 선생이라 부르고, 장차 사귀어 벗이 되려고 하십니다. 제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워 스승님 문하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선굴자가 말했다. “....왕십리의 무, 살곶이다리의 순무, 석교의 가지·오이·수박·호박, 연희궁의 고추·마늘·부추·파·염교, 청파동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같은 것들은 가장 좋은 밭에서 가꾸고 있는데 모두 엄 행수의 똥거름을 사용한 덕분이란다. 땅이 기름지고 살져 1년에 6000냥을 벌어들이지. 하지만 엄 행수는 아침이면 밥 한 그릇을 해치우고는 기분 좋아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밥 한 그릇을 먹을 뿐이지. 사람들이 고기를 권하면 사양하며 말하길, “목구멍을 내려가면 채소나 고기나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합니까?” 한단다. 옷을 권하면 “소매가 넓은 옷을 입으면 몸에 거추장스럽고, 새 옷은 똥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엄 행수와 같은 이는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 )’이라 할 수 있지.....저 엄 행수는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 먹고사니, 지극히 더럽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밥벌이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향기롭단다. 그가 처한 곳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그 의로움을 지킴은 지극히 고상하단다. 그의 뜻을 미루어 보자면 비록 엄청난 녹봉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지. 이로써 보건대 깨끗한 것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도 더럽지 않단다...선비로서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거네. 그

래서 나는 엄 행수에 대하여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야.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네.”

글에서 엄행수와 대립을 이루는 인물은 자목이다. 자목은 그 시대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신분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조선조는 신분제 사회이다. 선조 이후 당파가 생기고 나서는 같은 신분끼리, 같은 당파끼리만 어울렸다. 고귀한 신분의 스승이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을 가까이 두려는 행동을 제자인 자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엄 행수란 자는 마을에서 제일 천한 사람으로 하류(下流)에서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발언은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직업 관념이라고 보면 된다.

윗글은 똥 푸는 직업, 곧 전업 똥 장수의 존재에 대해 말해준다. 조선 후기에 한양 근교에서는 원예 작물을 길러 도시민에게 공급해주는 원예업이 성행하였다. 제한된 토지에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분뇨를 덧거름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었다.<sup>11)</sup> 그리하여 엄행수와 같이 한양의 똥을 퍼서 서울 근교의 원예업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일명 똥 장수가 생겨났다. 똥 장수들은 도시의 인분을 수거하여 지게와 망태 등으로 날라다가 인근 농가에 팔았다. 당시 한양의 똥을 근교의 농가에 팔아 부를 축적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똥 장수의 임금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똥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사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똥을 푸는 사람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이는 다시 가장 천한 존재성으로 연결된다. 곧 엄행수는 가장 최하층에 있는 천인 역부이다. 입전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은 인물이다. 왜 작가는 똥 푸는 사람을 입전 대상으로 삼은 걸까?

---

11) 최덕경, 「조선시대 분뇨시비와 인분」, 『역사학 연구』 40집, 2010, 51~112쪽.

작가는 엄행수에 대해 똥으로 먹고 사는 것은 지극히 더럽지만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롭다고 했다. 엄 행수가 가져다준 똥은 왕십리의 작물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는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탐내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 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숨어사는 대 은(大隱)’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작가는 똥 장수의 건강한 생산성을 예찬 함으로써 궁핍을 자랑으로 여기고 출세를 으스대는 선비들의 무능과 위 선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선비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똥 장수를 스승의 지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당시의 신분제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선비들의 무능을 부정한다. 그리하여 비천함이라는 기호를 갖는 똥은 고귀함으로 바뀐다. 작품 제목의 ‘예덕(穢德)’에서 예(穢)가 더럽다는 뜻이니 예덕이란 덕(德)을 더러운 똥으로 감추고 있다는 뜻이다. 똥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더럽지만 이면엔 가장 고귀함을 감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똥 장수 엄행수에게 ‘선생’이란 호칭까지 붙임으로써 좋은 친구란 누구인가?, 참다운 인간이란 누구인가, 좋은 스승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예덕선생전」은 똥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을 조명하는 글이라 하겠다.

「예덕선생전」의 똥이 건강한 인간을 표상하는 기호로 쓰인다면 호질(虎叱)에 나오는 똥은 부조리한 인간을 풍자하는 기호로 작용한다.

이에 다섯 아들은 안방을 둘러싸고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 다리 하나를 들어 목에 걸고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뛰쳐나갔다. 달아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속에는 똥이 가득했다. 아등바등 더위잡고 올라가 머리를 내놓고 바라보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이맛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었다. “그 선비, 역겹구나.”

「호질」 가운데 똥이 나오는 장면이다. 작품의 북곽 선생은 명리(名利)에 연연하지 않는 유학의 이상적인 독서 군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

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과부 동리자와 몰래 밀회를 즐긴다. 그런 그가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밀회 장면을 들켜 허둥지둥 도망을 친다. 다리 하나를 들어 목에 걸고 귀신처럼 춤추며 문을 뛰어나가는 장면에서 유학자의 체통은 완전히 구겨진다. 그리곤 똥이 가득한 똥구덩이에 빠진다. 가장 고상한 군자가 가장 더러운 똥구덩이에 빠짐으로써 유학자의 고고한 위상은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유학자의 처신과 행동은 똥구덩이 속에 들어갈 감량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똥은 독서 군자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극적 장치이다. 유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독서 군자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똥구덩이에 빠뜨림으로써 독서 군자의 자존심과 긍지는 여지없이 더럽혀졌다. 「예덕선생전」의 똥이 가장 비천한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호질」의 똥은 가장 고상한 인간을 가장 비천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똥을 통해 기존의 질서와 인간관을 깨부수고 비천/고귀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 3. 똥의 차이학 ; 중심과 주변의 해체

연암의 똥은 중심/주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말하는 기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진실로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의 가운데[中]에 있다.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살펴보기 어렵다. 옷과 살갗의 사이에는 본래 빈틈이 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니 누가 그 가운데[中]를 얻겠는가? 쇠똥구리는 자신의 소똥경단을 좋아하기에 여룡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룡 역시 자신에게 여의주가 있다고 해서 저 쇠똥구리의 소똥경단을 비웃지 않는다.<sup>12)</sup>

12) 박지원, 『燕巖集』, 「蠅丸集序」: “故真正之見, 固在於是非之中. 如汗之化蟲, 至微而難審. 衣膚之間, 自有其空, 不離不襯, 不右不左, 孰得其中? 蜚蠊自愛滾丸, 不羨驪龍之珠,

소동과 여의주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중(中)과 관련된다. 앞의 글에 따르면 가운데(中)는 옳다 그르다 하는 ‘사이’를 말한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말을 타더라도, 사람들은 한편에서 본 사실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편도 똑같은 거라 판단하기에 실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는 옷과 살의 지극히 미세한 ‘틈’에서 생기므로, 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제대로 살피기란 참 어렵다. 그 사이(中)는 떨어진 것도 붙어 있는 것도 아니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미묘한 지점이다. 이것과 저것을 쉽게 나누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의 방편일 뿐, 저것으로 인해 이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다. 곧 존재는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를 비취춤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 이항대립이 동시에 부정되고 긍정됨으로써 가치의 위계화가 무너지는 자리가 ‘사이’이다.<sup>13)</sup> 천함과 귀함, 중심과 주변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취춤으로써 의미를 드러내며 모든 존재가 제각기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소동과 여의주 비유는 이와 같은 논의를 수렴하고 있다. 소동과 여의주는 서로 이항대립을 이룬다. 용의 턱 밑에는 여의주(如意珠)가 있다. 여의(如意)란 ‘뜻대로 된다’는 뜻이니 여의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슬이다. 사람이 이 구슬을 얻으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구슬이다. 반면 쇠똥구리에게는 소동경단이 있다. 소동경단은 소의 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도 고약하고 더럽다. 소똥에 미끄러지면 정말 재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쇠똥구리는 소동경단을 잘 보관했다가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한다. 쇠똥구리에게 소동경단은 아주 소중한 존재다. 여기서 여의주는 아주 귀한 물건을, 소동경단은 쓸모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건

---

驪龍亦不以其珠，笑彼蜃丸。”

13) 인용문의 불리불진(不離不攢), 불우부좌(不右不左)는 불가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어법이다. 연암은 불교의 어법을 빌려와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교의 이 어법이 갖는 의미는 이도흙,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출판부, 1999, 131~134쪽 참조.

용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각에 불과하다. 쇠똥구리의 입장에 서면 여의주는 아무 쓸모가 없다. 쇠똥구리에겐 오직 소똥경단만이 꼭 필요하다. 용도 쇠똥구리에겐 소똥이 필요한 걸 잘 알기에 자신의 여의주로 쇠똥구리를 비웃지 않는다. 곧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각자 상황에 적합한 쓸모가 있을 뿐이다. 여의주와 소똥은 하나의 상징적 기호이다. 여의주가 중심에 놓인 가치를 나타낸다면 소똥은 주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이쪽과 저쪽의 사이에 서면 중심과 주변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무엇이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생각은 이분법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차별일 뿐이다.

작가는 소똥과 여의주를 통해 중심과 주변, 귀함과 천함의 이항대립을 무너뜨리고, 존재의 평등성을 말하려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환기시켜 주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중심적인 가치가 권력을 얻게 되면 주변적인 가치, 중심과 대립되는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보이는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하므로 그 반대편, 주변적인 것들은 항상 가리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작가는 소똥과 여의주를 내세워 주변 가치, 소외된 존재의 소중함을 말하려 한다.

윗글은 얼핏 양쪽의 대립되는 사상이나 가치를 두루 인정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려는 것은 중심과 주변 간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다. 중심적인 가치가 확연하게 권력을 획득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균형은 중심의 허위성을 은폐하는 논리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윗글의 제목은 「낭환집서(蠟丸集序)」인데, ‘소똥경단(蠟丸)’이라는 천한 사물을 문집의 제목으로 삼게 된 저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글이다. 곧 연암이 관심을 둔 것은 소똥이었고 빈틈이었다. 작가는 사회 권력을 획득한 것에 가려 있는 것, 중심 가치에 소외되어 있는 것, 곧 소똥을 유심히 보자는 것이다. 소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비천하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살피자고 한다. 이는 존재의 위계화를 무너뜨리고 중심과 주변, 천함과 귀함을 구분 짓는 이항대립을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I. 연암의 똥이 갖는 의미

전근대 시대에 똥이 훌륭한 자원의 역할을 했다면, 근대에 이르러 똥은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의 도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탓에 분노는 아무 데나 버려졌다. 지하수와 하천은 분노로 오염되었고 길은 온통 똥 천지가 되어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들으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이 적어서 부강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보다도 사람과 짐승의 똥, 오줌이 길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하니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단 말인가?<sup>14)</sup>

김옥균의 말과 같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똥으로 가득한 미개한 공간이었다. “서울 시내를 꿰뚫는 작은 내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를 주위에는 똥 무더기가 쌓여 있다. 위생 관념이 이 정도인 서울 시민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이다.”,<sup>15)</sup> “성 안에서 가장 더러운 이 골목에는 오물과 쓰레기들을 씻어 내려갈 하천들이 없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항상 집 앞에 잔뜩 쌓여 있다.空地라는 것은 거리를 빼고는 없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 등 잡동사니가 이런 길가에 수북하게 쌓였다. 골목의 쓰레기는 치우는 사람이 없어 마냥 돌 더미와 함께 수북

14) 김옥균, 「치도약론(治道略論)」, 『한성순보』, 1884년 7월 3일자.

15) G.W. 길모어 지음,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41쪽.

이 쌓여 있고 흙탕물까지 괴어 있어서 피해가기도 힘들다.”<sup>16)</sup> 등과 같이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를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미개한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근대의 척도로 위생과 청결이 전면으로 등장했다. 똥은 위생과 청결이라는 명목 아래 문명의 적이 되었으며 악취 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똥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의 문제도 나타났다. 화학 비료가 분노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갔다. 똥은 문명/야만, 청결/불결, 건강/질병, 순수/오염이라는 이항 대립 가운데 후자를 표상하게 되었고 더럽고 냄새나며 버려야 할 폐기물이 되었다. 근대의 똥은 금기였고, 이른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한 아브젝시옹이었다.

그러나 연암에게 똥은 훌륭한 자원이었고 생명이었다. 사람들이 똥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연암은 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똥을 기존의 제도와 금기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기호로 사용했다.

『장관론』에서는 똥이 문명의 본질이었다. 똥은 쓸모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금의 가치를 지니는 귀한 자원이었다. 작가는 좋은 제도란 무엇인가, 훌륭한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똥을 통해 문명사의 시각을 제시했다. 가장 무가치한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연암이 생각한 문명의 조건이었다. 연암은 크고 웅장한 것만을 멋지다고 여기는 편견을 깨뜨리고 외관이 아닌 본질을 볼 것을 요청했다.

「예덕선생전」의 똥은 신성한 존재였다. 똥은 혐오스런 오염물이 아니라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여 생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거름이었다. 똥은 농작물의 거름이 되어 생명이 잘 자라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존재로, 부와도 연결되었다. 따라서 똥 푸는 이야말로 비천한 인간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였다. 표면적으로는 더러워 보이거나 실제로는 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천한 존재가 가장 고귀한

---

16) 김영자 편,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1997, 220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역설을 제시하여 전통적인 인간관에 대한 전복을 꾀했다. 반면 「호질」에선 가장 고귀한 존재를 가장 더러운 똥에 빠뜨림으로써 똥은 위선적인 유학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이상적인 선비의 품성이 똥구덩이에 들어갈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제를 전달함으로써 고귀함과 비천함이 역전되도록 했다.

「낭환집서」에서의 소똥과 여의주는 주변/중심을 해체시키는 기호였다. 똥을 통해 다양함의 가치를 조명하고 주변적인 가치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쇠똥구리는 자신의 소똥을 스스로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 주변과 중심이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할 것을 나타냈다. 표면적으로는 소똥과 여의주의 균형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소외된 소똥을 중심으로 끌어들여 소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곧 연암에게 똥은 숭고/비천, 중심/주변, 우아미/추미, 고귀함/천함, 쓸모 있음/쓸모 없음, 청결/오염의 이항 대립을 해체하고 차등과 차별을 전복시키는 핵심적인 기호였다.

## IV. 마무리

주지했다시피 근대에 이르러 똥은 위생과 청결에 밀려 야만과 더러움의 상징이 되었다. 똥은 더 이상 거름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폐기되어야 할 오염물질이 되었다. 똥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악취물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똥을 보면 코를 막고 피했다. 권정생의 『강아지 똥』에서, 강아지 똥에게 쏟아진 “너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인 걸.”이라는 힐난은 오늘날 똥을 대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똥은 소중한 자원이었다.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데 분노만한 거름이 없었다.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삼십 대[棄灰者杖三十]이고,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棄糞者杖五十]’라는 말과 같

이 사람들은 똥을 귀하게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똥을 인식론의 층위에서, 혹은 미학적 차원에서 바라본 이는 없었다. 특히 생산 활동을 금기시켰던 선비들에게 똥은 그저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런, 가장 쓸모없고 비천한 사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암은 똥에서 문명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신성함과 고귀함을 찾았다. 근대와 고전 시대 선비들이 똥을 야만의 징표로 본 반면 연암은 똥에게서 문명의 징표를 읽었다. 똥을 통해 기존의 규범과 관습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가장 비천한 사물에서 가장 신성한 것을 찾아내는 차원 높은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연암이 똥이라는 기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중심과 주변, 숭고와 비천, 쓸모없음과 쓸모 있음의 이항 대립을 완전히 부정한 데까지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중심과 주변의 위계질서를 뒤바꾸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문의 논리상으로는 이항대립을 해체하여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태도를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세 시대에 정말로 그러한 사유까지 도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러한 논의는 연암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풍자 정신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천에서 숭고함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천박함에서 고귀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연암의 똥에 대한 전복적 상상력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길모어, G.W. 지음, 신복룡 옮김, 『서울 풍물지』, 집문당, 1999.
- 김영자 편,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1997.
- 김옥균, 「치도약론(治道略論)」, 『한성순보』.
- 김용선, 「분노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은지논총』 50집, 2017, 203~229쪽.
- 김치수 외,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박수밀, 「연암 박지원의 生態 美意識」, 『동방한문학』 49집, 동방한문학회, 2011, 363~393쪽.
- \_\_\_\_\_,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돌베개, 2013.
- 박제가 지음, 안대회 교감 역주, 『북학의(北學議)』, 돌베개, 12013.
- 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2·3, 돌베개, 2009.
- \_\_\_\_\_, 신호열, 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중·하, 돌베개, 2007.
-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 안동립 역주, 『장자』, 현암사, 1993.
- 이덕무 평선, 박희병 외 역주, 『종북소선』, 돌베개, 2010.
-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출판부, 1999.
- \_\_\_\_\_, 「현대기호학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한국학연구』 1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3, 7~41쪽.
- 이승훈 지음, 『문학으로 읽는 문화 상징사전』, ‘똥, 대변 배설물’, 푸른 사상, 2009.
- 이현식, 「열하일기의 제일장관, 청나라 중화론과 청나라 문화 수용론」, 『동방학지』 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433~470쪽.
- 진달예, 「현대미술에서 신체-오브제(Body-Objet)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덕경, 「東아시아 糞尿시비의 전통과 生態農業의 屈折」, 『역사 민속학』 35, 2011, 255~289쪽.
- \_\_\_\_\_, 「조선시대 분노시비와 인분」, 『역사학 연구』 40집, 2010, 51~112쪽.
- 크리스테바, J. 지음,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The subversion of difference and loftiness, sign of poop :

In terms of poop by Yeon-Am, Park Jiwon

Park, Sumil

This study is to reveal the human spirit to challenge the prohibition and traditional order, by searching for poop, a kind of abjection. Firstly, it proves the discourse of poop by Yeon-Am, Park Jiwon and considers the meaning of poop in premodern times. It approaches its meaning with three layers. First of all, it finds the meaning of poop fertilizer in ‘theory of grandeur’ of “Il-Shin-Su-Pil”. Yeon-Am claimed that poop fertilizer is a real grandeur, so the thought of finding the most valuable usage in this useless poop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thought of Jang Ja. For Yeon-Am, poop is a great resource like gold, a symbol of civilization. His thought that all being could be a object of aesthetic value broke the traditional binary opposition view as like loftiness and lowness, beauty and ugliness, usefulness and disuse. He tried to talk about the real human being in “Yeo-Duk-Sun-Saeng-Jeon”. In the character of person who works for poop treatment in his work, “Yeo-Duk-Sun-Saeng-Jeon”, he tried to tell who is a real human. In this work, poop is a sacred thing. He tried the subversion of traditional thought, by appealing that the most humble being is the most noble person. In “Yeo-Duk-Sun-Saeng-Jeon”, a poop is a sign of presenting the sound human, in “Ho-Jil”, a poop is a sign of satirizing the absurd people. In “Nang-Hwan-Jib-Seo”, a poop is a sign of destroying the line between center and surroundings. By deeply considering a poop, the value of variety is evaluated, and the value of surroundings could be positioned in the center. So for Yeon-Am, a poop is a sign of subverting the unequal and difference, of destroying the binary opposition view as like loftiness and lowness, center and surroundings, beauty and ugliness, unearthliness and humble, usefulness

and disuse, cleanliness and dirty. Noblemen of modern and classics era considered poop as the symbol of barbarism, however, Yeon-Am read the sign of civilization in this poop. He appealed the new order of subverting the traditional rules and habits in it. He presented high value of imagination to reveal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most miserable thing.

Keywords : poop, Park Jiwon, Theory of Grandeur (Jang-Kwan-Ron), Yeo-Duk-Sun-Saeng-Jeon, the binary opposition, sign.

투고일 : 2017. 05. 22. / 심사일 : 2017. 06. 05. / 게재확정일 : 2017. 06. 12.

